

겨울철 시설 감자, 철저한 재배관리 필수

농진청, 보온에 힘쓰고 적절한 환기로 습도 조절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겨울철 시설 감자를 재배할 때 저온과 폭설에 대비해 다음 해 이른 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겨울철 시설 감자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인 3~5월에 주로 출하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출하된 감자보다 가격이 높다.

시설에 심은 감자는 썩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잎줄기가 한창 자라는 시기인 1~2월에 저온 피해를 보기 쉽다. 시설 내 평균온도가 5도(C)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자 생장이

늦어져 잎이 변색, 영하로 떨어지면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된 잎과 줄기의 생장이 멈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온도 하강에 유의하여 보온에 힘써야 한다. 이중 수막재배에 온풍기를 이용하고 입구에 비닐 커튼을 설치해 밤에 닫아놓으면 보온 효과를 볼 수 있다.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을 피하고 오래된 시설은 지주대를 세워 골조를 미리 보강하도록 한다.



시설내 환기불량 고온피해 감자앞산

3월부터 기온이 올라갈 때는 시설 안의 온도가 높아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설 옆면의 비닐을 걷어 올리거나 환기팬을 설치해 내부 온도가 30도(C)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겨울철부터 봄까지 시설 안 온도는 낮고 습도는 높아지면 감자 역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시켜 습도를 낮춰준다.

농촌진흥청 고흥지농업연구소 조지홍 소장은 "고품질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한겨울 저온·폭설과 봄철 고온 피해를 보지 않도록 1~2월에는 보온, 3~4월에는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옥기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4일, '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라한호텔 전주에서 열었다.

전북건설, 상호협력 '새 출발'

간협 전북도회, 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는 4일 '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라한호텔 전주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정운천 국회의원 등 건설관련 기관 및 도내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역대 건설인 원로와 회원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회를 이루었다.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와 협회발전 그리고 공사분야의 청렴문화 정착과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한 21명의 건설인 유공자에게 대한건설협회 회장 감사패와 전북도지사 표창, 전라북도교육감 표창 수여 식도 함께 진행했다.

소재철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지만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

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당부한다. 협회도 신규 물량 창출, 적정공사비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으로 지역건설업계가 역경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철 회장은 지역건설 산업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 10조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만금사업과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증진 추진을 통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갑진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완년 회장의 새해를 맞이해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자세로 건설업계에서도 지역 도민의 소통과 협업·협력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전북 건설 산업을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동절기 24시간 안전관리로 고객불편 최소화

LH전북본부, 신속 제설 가능한 장비 지원과 결빙구역 미끄럼 방지 조치



롯데백화점 전주점, 자치도

출범 앞두고 홍보 앞장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180만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전북 유일의 백화점인 전주점은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주 출입구 정문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대형 현수막에는 함께 해온 128년, 다시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함께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관계자는 "이번 현수막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뜻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주점을 찾는 도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전개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LH전북지역본부는 4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적 한파와 폭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본부 자체적으로 동절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LH와 시설물 보수 전문 업체들로 구성된 기동대응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수도계량기 급수·우수배관 등파 등 한파·폭설 피해 사례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TP, VRFB 기반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파트너십 구축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원장 이규택)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컴퍼니 위와 VRFB(비리튬 레독스 흐름전지) 기반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4일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VRFB(Vanadium Redox Flow Battery)는 양극과 음극에 사용된 비리튬 전해액이 산화 또는 환원되면서 충전과 방전이 되는 원리로 작동하는 배터리다.

대용량화가 가능하고 배터리 수명이 평균 20년 이상이며, 특히, 화재 위험이 없어 최근 리튬이온전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산업부 글로벌스타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VFlowTech사(싱가포르) 흐름전지배터리를 활용한 국내 테스트베드 설치 운영사업이다.

태양광 재생에너지(30kW)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VRFB에 충전하고 방전해 전기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급속 1대, 완속 3대)을 구축해 가동 개시 후 5년간 배터리 성능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TP는 충전 스테이션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완주 봉동 일원에 660㎡(200평) 정도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공은

에스에쓰컴퍼니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전체적인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주)컴퍼니 위는 충전 스테이션 통합 관리 및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북TP 이규택 원장은 "이번 흐름전지배터리 기반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실증 테스트를 통해 흐름전지의 경제성과 화재위험성에 대한 고신뢰성을 확보해 남비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한은 전북본부, 도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100억원 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00억원 이내로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억원)이다.

SOH기업은 신용등급 제한 없이 지원되나 한은 전북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에 따라 부당산업, 유출금 등 일부 업종 영위 업체, 고신용등급 해당 업체, 지원 일몰 업체는 제외된다.

대출 취급기간은 오는 8일부터 내년 8월까지다.

한은 전북본부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금액의 일부(최대 50%)를 연 2.0%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공급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이 대출금리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운용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